



오늘의 날씨와 생활

5월 23일 목요일 음 4월 19일 (11물)

기상정보

맑음



제주도 남쪽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5-19°C, 낮 최고기온은 23-28°C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1.0-1.5m로 일겠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제주, 오후. Rows show 0% precipitation probability for all categories.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달뜨기. Rows show times for sunrise (05:29) and sunset (23:33).

Table with 2 columns: 내일, 모레. Rows show weather (맑음) and temperature (19/28°C, 20/27°C).

Table with 2 columns: 식중독지수, 좌외선지수. Rows show '관심' and '매우높음'.

월드뉴스

영국,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 박차

내년부터 빨대·면봉 등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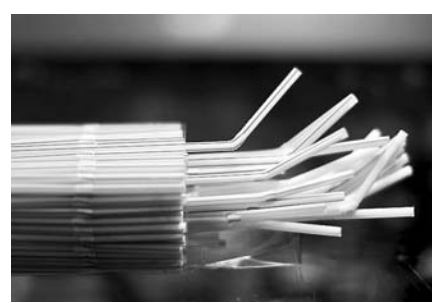
영국에서 내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접시, 면봉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고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와 DPA 통신이 22일(현지시간) 전했다.

마이크로 고브 영국 환경부 장관은 이날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하고 "이 물품들은 보통 단지 몇분 사용되고는 분해되는 데 수백 년이 걸리며, 결국 우리의 바다로 흘러 들어가 소중한 해양 생물에 해를 끼친다"고 밝혔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음료 컵, 면봉은 내년 4월부터 금지되며 플라스틱 접시와 나이프, 숟가락, 포크 등 일회용 식자 도구는 그 이듬해부터 판매가 금지된다.

단, 의료적으로 필요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플라스틱 빨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술집이나 음식점에서는 이 같은 면제 대상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



플라스틱 빨대.

우에는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눈에 보이도록 비치하거나 자동으로 제공하는 것은 금지할 예정이다.

영국에서 연간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빨대가 47억개, 컵 3억1600만개, 면봉 18억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영국 환경부는 밝혔다.

영국 정부는 이번 금지 조치에 따라 연간 사용되는 플라스틱 빨대가 4400만개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목요일론



오수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

제주역사에서 평화에 대한 의미는 각별하다. 71년 전 4·3사건의 아픈 기억이 한 뭉클 했지만, 역사적으로 제주는 지리적 요건 때문에 주변 세력들로부터 많은 침입과 저지를 받았기에 평화에 대한 갈망은 진행형일 수밖에 없다.

군이 기록을 찾아본다면,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 100여년 간의 몽고의 간섭기, 여말선초부터 근대까지 자행된 예구의 다발적 침탈, 조선 중기 명종대의 을묘왜변, 탐관오리들의 학정에 의한 민란, 일제 강점기의 전초기지로서의 군사적 착취와 전쟁, 4·3사건, 그 역사의 중심에 제주도민이 있었다.

평화의 섬 제주, 진정성

이처럼 천년의 시간 동안 제주역사는 지리적 요충지에서 오는 주변의 침략 대상지, 거친 토질에서 낮은 생산량에 의존한 생활은 아름다운 자연의 섬 속에 평화를 간직했다. 이는 바다라는 오히려 굴곡의 세월을 품었다.

왕조실록을 보더라도 제주는 척박한 대지와 가뭄과 재해, 왕도와 멀리 떨어져 수령조차 쉽게 관리될 수 없었던 곳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종 때는 제주를 떠나 떠돌이 유랑민 수가 1만 명을 넘었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바라 본 신비의 섬 제주가 아니었다.

조선왕조가 지방제도를 정비하고 제주에 목사를 파견하는데 있어서도 특별했다. 제주가 왕도와 멀리 떨어져 있고 해도(海島), 절도(絶島)라는 이유로 목사의 명칭에 상왕(上王) 안무사(安撫使), 방어사(防禦使), 병마수군절제사(兵馬水軍節制使) 등을 겸직시켰다. 제주목사의 겸직은 육군과 해군을 총괄하게 하는 군

사직 체제로서의 입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만이 아니다. 종종 19년에는 제주가 바다 밖에 있기 때문에 수령들이 불법을 저질러 많은 백성들이 유랑할 수 있고 또한 군기관리까지 허술할 것이라고 하면서 어사를 보내어 죄상을 살피라고 어명이 내려지기도 했다. 조선왕조는 제주 섬 안과 밖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였으나, 조선 안에 제주는 국방의 위협과 위정자의 여하에 따라 흔들리는 곳이었다.

이러했던 제주가 2005년 1월 27일 정부로부터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받았다. 이것은 국제적 분쟁과 갈등을 예방·해결하는 완충센터로 거듭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국제평화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상징적 지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 평화의 섬 지정 당시부터 해군기지 갈등에 이어 영리

병영, 제2공항, 대형개발사업에 대한 갈등들이 릴레이 되어 진행되어 왔다. 과거가 외부세력에 의한 평화의 해침이었다면, 현재는 도민사회 내부에서 평화를 해치는 갈등이 난무하다.

그 뿐만이 아니다. 14년 전 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17대 사업들은 5월 하순에 있을 제주포럼과 4·3사건 관련 사업, 평화기후, 국제기구 유치, 제외하면, 모두 단발성이거나 지지부진 한 사업이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알뜨르비행장 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조차 공약 후순위 사업으로 밀려버렸다.

이제 평화의 섬 제주는 14년 전 만든 17대 사업에 매몰 될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을 가치 조명하여 평화로 재해석해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도내 곳곳에서 생체기 내듯이 일어나는 갈등들을 조정하고 치유하는 정책이 평화를 위한 사업으로 새로 조성해야 한다.

특별기고



정세호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제주의 속살을 제대로 알려고 한다면,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을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는 파워블로거 등 SNS의 소개 글을 만나면 기쁘면서도 아까가 많이 무거워집니다. 또 '탐라전년의 제주 자연과 역사·문화, 삶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라는 관람객들의 평가를 들을 때마다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의 위상과 그 가치를 새삼스럽게 느끼곤 합니다. 그만큼 박물관의 관리와 운영 면에서 좀 더 세심한 손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박물관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인류역사의 다양한 문화를 담은 문화의 보고(寶庫)이고 기억의 공

'제주다움의 참가치'를 보여드립니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개관 35주년에 즈음하여

간이며, 관람객이 직접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실체를 담아 놓은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수집·연구·전시·교육을 통해 역사, 문화, 예술을 일반 대중에게 보급하며 평생교육, 정보교류, 즐거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오늘날에는 교육적 기능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의 제주상징관을 비롯하여 제1~2 민속전시실, 자연사전시실, 해양종합전시실, 제주체험관, 야외전시장, 특별전시실(수놓음관) 등 여덟 개의 전시관에는 제주를 있는 그대로 오감을 통하여 보고 듣고 느끼게 해주는 보물들로 가득합니다.

지난 1978년, 당시 문화공보부로부터 '제주지역 고유민속 유물과 동·식물 및 광물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관·연구·전시하여 제주지역 민속자연사 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로 승인받고 설립된 전국 국립박

물관 최초의 민속·자연사박물관으로 개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어언 35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초 착공으로부터는 42주년이 됩니다. 어느덧 불후의 세월을 지내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과거 문화진흥원과 2번의 통폐합, 그리고 독립... 하지만 그러한 세월 속에서도 전국 최초로 국립박물관 관람객 3333만 3333명(2019년 2월 7일)을 돌파하는 영예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특별전 142회, 학술조사보고서 81권 발간, 그리고 1990년부터 시작된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23개 과정에 총 11만 명이 교육을 받아 명실상부한 교육 공간으로서도 자리를 잡아 원도심의 문화 1번지로 거듭 발전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머지않아 '하늘의 명을 알았다'는 지천명(知天命)의 연륜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원숙한 자세로 '제주 민속·자연사'의 참가치를 발굴·연구·전시·보존하는 임무에 더욱 충실을 기할 것입니다.

제주 민속과 자연사 등 고유의 가치를 제대로 담아내어 알리고 전승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제주다움'을 자존민단에 이르기까지 고양하며 지켜내는 박물관으로서 거듭나려 합니다. 특히 도민과 관람객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교육과 놀이문화 융합을 통한 전시 연계·체험위주 교육환경 조성 역시 함께 이뤄내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도민이 중심이 되는 문화융합공간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가일층 노력을 경주하려 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리일보 제주 대표 신문.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including website, phone, and fax numbers.

Advertisement for Sorisem Digital Recorder. Includes a photo of a man, product images, and contact information: TEL. 753-5347.

Advertisement for Marblein stone products. Features images of stone stacks and text: '세상의 모든 돌 이야기', '수입대리석, 화강석, 라임스톤 판매 및 수입대행'.